

독일인의 心性에 대한 탐구

미셀 투르니에 지음, 신현숙 옮김 「마왕」

세계 역사를 놓고 살펴볼 때면 가까운 나라끼리의 사이가 먼 나라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가 바로 대표적이라고 하겠는데, 유럽에선 독일과 프랑스가 비슷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이 두 국가는 나폴레옹, 비스마르크시절을 거쳐 가장 최근의 이차대전에서 이르기까지 끝없이 서로를 침략하고 대립해왔다.

「마왕」(지학사)은 프랑스의 대표적 작가 미셀 투르니에가 '소설로 쓴 독일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마왕'이라는 제목은 괴테의 시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노래로 널리 알려져 있듯이 독일의 국민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소설은 흔히 신비스럽다고 알려져 있는, 또 때로는 파괴적이고 음침하게 여겨져온 독일의 정신세계를 프랑스인 특유의 명료한 지성으로 해부한 작품인 것이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이차대전. 주인공 티포주는 애정이 결핍되고 모욕을 당하는 어린 시절을 거쳐 자동차 정비공으로 살아간다. 그러던 그가 어느날 무고하게 소녀 강간죄에 휘말리는데 이때 전쟁이 발발하며, 그는 동프러시아로 이송된다. 포로생활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마왕, 즉 소년을 유괴해가는 식인귀의 후예임을 깨닫고, 자신의 숙명을 알려주는 자연계의 징표를 찾기 시작한다.

바로 여기서 이 작가 특유의 '신화적 세계 해석'이 나타난다. 이 작가의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나지만, 끊임없이 현실적 사건 전개와

함께 고대의 신화를 작품 속에 침투시켜 작품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이 작품 속에 그려진 식인귀의 신화는 모든 위대한 신화가 그렇듯이 모순된 힘을 지니고 있다. 즉 사랑과 증오, 생과 死라는 의미가 그것이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바로 이 신화의 부정적인 면, 증오와 죽음을 의미한다면 티포주 자신은 긍정적인 면, 사랑과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히틀러와 티포주는 동일한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독일인이 가진 원초적 심성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는 인류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이차대전같은 파멸을 불러왔다고 이 작가는 보고 있는 것 같다.

소설의 결말에서 티포주는 자신이 사랑하던 소년을 어깨에 태우고 늪지 밑으로 사라지는데, 여기서 작가는 다시 소년 예수를 짊어진 크리스토프의 전설을 대입시킴으로써 작중인물의 구원에 대한 암시를 짙게 풍기고 있다.

투르니에의 이 작품은 현대소설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보여줌과 아울러 우리로서는 상당히 낯선 독일心性의 탐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야 할 책이라고 본다.

권혁수

간호원 · 국립의료원 정형외과

서양 과학문명의 본질 이해에 도움

호йка스 지음 「근대과학의 출현과 종교」

과학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커지고 많은 관련 서적들이 소개되고 있다. 쿤(Kuhn)은 과학의 발전이 지식의 단순한 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근대과학이 출현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업적을 남기고 있다. 이런 저작들은, 과학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학자의 고립된 노력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문화양식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호йка스(Hooykaas, R)는 「근대과학의 출현과 종교」(손봉호 · 김영식 옮김, 정음사, '87)에서, 종교가 과학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종교적 입장의...결과"(p. 161)임을 보이려 했다. 즉, "신(또는 신들)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은 자연에 대한 그들의 관념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곧 그들의 과학이다"(p. 17). 서양문명에서 그리스적 관념이 근대과학의 합리적 태도에 기여한 만큼, 성경적 관념은 "자연에 비신격화하고, 인간 이성을 더욱 상대적으로 평가하고(경험주의적으로), 육체노동을 좀더 높이 평가"(p. 17)함으로써 그리스적 태도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하여 근대과학의 발전에 유익한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한다.

그리스문화에서 신적 위치를 차지했던 자연이, 기독교문화에서는 창조주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혹은 신의 섭리를 기록한 거대한 책으로 이해되었다. 자연은 신의

의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직접 경험에 의해 자연을 연구하는 일은 세계의 제작자인 창조주의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자연이 합목적적이지 아니라 기계적이라는 관념을 이끈다.

기계론적 세계상의 승리와 함께 자연과 기술의 구분은 폐기되었다. 노동을 천시한, 그래서 실험적 작업을 무시한 그리스적 태도에 대하여, 성경적 관념에서는 기술자의 노동과 직업이 명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실험적 작업도 존중되게 되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과 과학의 관계, 성경의 재해석 문제, 청교주의의 태도 등을 다루고 있다.

호йка스의 저서는 과학과 종교(특히, 기독교)간의 관계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깨게 하고, 단절시켜 파악하기 쉬운 근대과학과 철학을 중세와 연결시켜 이해하도록 한다. 종교와의 관련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영향은 소홀하게 취급된 느낌이 있다. 배경지식이 없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나, 독파하고 나면 서양 과학문명의 이해에 굉장한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된다. 내용이 압축적인 데가 많으므로, 용어해설과 색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박창호

서울대 대학원 심리학과

위기와 격변 속의 중세말기 像

박은구, 이연규 엮음 「14세기 유럽사」

유럽의 1270년대로부터 1370년에 이르는 백년의 기간은 한마디로 위기와 격변의 시기로서 중세적 경험의 마지막 부분을 뚜렷한 형태로 구분지어 놓았다.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 유지되었던 중세문명의 본질적인 특징은 일원적인 성격에 있었다. 즉 로마에 의해 통치되는 하나의 교회, 기독교사회에 대한 신념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중세 문화를 활짝 꽃피게 하였던 이 틀은 13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그 해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조짐들은 더욱 강력해지고 보다 지속적으로 되어갔다. 교황청은 종교적인 소요와 긴장을 규제하기 어렵게 되었고, 강력한

군주들과의 대립에서 교황의 국제적인 주도권이 유지되기 어려워졌으며, 그 공격이 너무나 격렬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교황권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여러 변화의 밑바닥에는 13세기 말부터 서서히 나타난 심각한 경제적 후퇴와 인구의 감소가 도사리고 있었으며, 이 현상은 14세기 동안 더욱 강화되었다. 중세의 전성기는 팽창하는 경제와 증가하는 인구에 의해서 유지되었고 또 더욱 활기를 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성장의 시기는 바야흐로 쇠퇴의 시기로 대치되어 14세기 유럽인들은 오랜 고난의 시를 맞이하게 되었다. 13세기 말에 유럽 경제의 여러 부문이 포화점에 다다랐음을 나

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중세 전성기는 줄곧 가속화되어 온 전반적인 팽창의 시기로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교역이 팽창하였으며, 도시가 새로이 세워졌고 광대한 토지가 개간되어 경작지로 바뀌었다. 그러나 농업이 아직은 가장 주요한 생계 수단 이었고, 유럽인은 알맞은 식량저장기술을 생각해내지 못하였기에 기후의 변동, 특히 지나친 강우량, 중세 내내 찾아들었던 기근은 14세기에 파멸적인 규모로 유럽을 강타하였다.

이러한 가혹한 재난들에 더하여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도높은 재해는 유럽 인구를 반으로 격감시켜버린 흑사병으로, 그 결과 재화는 엄청난 과잉공급 상태가 되었고 시장은 더 크게 위축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동시에 임금은 급격히 상승하여 농촌에서는 많은 예농신분의 해방이 이루어졌다.

14세기의 역사는 R. Lerner가 '역경의 시대'라고 칭했듯이 경제적인 관점뿐만이 아니

라 사회적으로도 거의 끊임없는 소요와 반란으로 점철된 시대로서 가격의 하락과 시장의 위축으로 절망에 빠진 도시노동자는 수공업자 및 도시귀족에 끊임없이 대항하여 하층민의 반란은 빈번해졌다.

14세기에 나타난 일련의 대재앙들은 이렇듯 유럽문명의 골격을 무너뜨리면서 당시 사람들의 성격을 심각하게 굴절시켰다. 그러나 신분제의 집착, 일탈, 그리고 죽음의 환영이라는 불건전한 성향을 추구하는 병적인 반응들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용기와 힘을 끌어모아 두려움을 억누르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투쟁을 계속해 나아갔다. 우리는 이러한 중세인들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투지력을 「14세기 유럽사」(탐구당, '87)란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方文淑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청화APT 3동 802호

반성해야 할 교과서정책

윤구병 엮음 「교과서와 이데올로기」

중·고교 학생들 사이에 어떠한 문제로 논란이 있다기도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다”고 하면 논란은 끝을 맺게 된다.

학창시절 드물게 선생님의 잘못된 설명을 지적해내는 학생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잘못된 설명-엄밀한 의미의 교육-의 지적이나 잘못된 인정이나 그 기준은 모두 교과서에 있다. 배움의 목표가 상급학교 진학이든지 인격수양이든지 간에 학생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빨간 줄을 긋고 노트에 기록을 하고 가능한한 그 부분을 외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 학생은 습득한 지식, 정보, 공식을 기준으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간을 평가하고 세상을 사는 방법을 터득한다.

이처럼 중요한 교과서가 근원적으로 잘못돼 있다면, 혹은 집필자나 관계당국, 그보다 위에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위정자의 일관되지 못한 사상과 정책으로 갈팡질팡한다면, 아니면 그릇된 목적에 사용될 양으로 왜곡 집필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에 실린 8편의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다.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설득과 강제를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의 의식과 행위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올바르게 형성하는데 있다면, 교과서는 자유·평등·평화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적 삶을 실현하려는 목적 아래 현실에 가로놓여 있는 자연적·사회적 여러 장애요

소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그 문제들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교과서는 그렇지 못하다.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과서는 삶의 중심문제에 대한 어떠한 내재적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나마 지엽적이고 오도된 문제에서조차 그 해석이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엮은이 윤구병은 「민족교육과 이념교육」을 통해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국가권력,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들어냈으며, 여타 논문들 예컨대 「학교교육에서의 교과서 내용비판」 「교과서와 이데올로기」 「지식의 史的 분화과정과 제도화된 지식으로서의 교육내용」 등도 일관된 주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비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모순의 일부인 교육문제 중에서 제한된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데 큰 한계를 안고 있지만, 저마다 교과서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일부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직·간접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

김호경

(주) 교보문고 출판홍보과

민중적 민족문학의 시적 성취

김용택 시집 「꽃산 가는 길」

질곡의 역사를 뛰어넘기 위한 시인들의 몸부림이 역설적이게도 화려했던 80년대 초의 ‘시의 시대’가 정치적인 격변기를 거치며 시나브로 그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이는 질적으로 새롭게 편성된 지배구조에 대한 언어적 대응양상이 총체성의 인식을 표나게 내세움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설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에 맞는 치열성에 있지, 장르에 대한 지역감정적 태도에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의 시대’라는 호사가적 관심으로부터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할지 모른다.

김용택의 시집 「꽃산 가는 길」(창작과 비평사)을 읽는 감회는 새롭다. 큰 목소리로 시의 시대를 연 이들을 두 눈 꿈벅거리며 찾아봐도 행방이 묘연한 이즈막, 건재한 그의 모습에 심진강 은어때 만큼이나 눈부시다. 비평가들의 평가 또한 「심진강」과 「맑은 날」을 통해 신경림을 제대로(?) 극복하여 농민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고 박노해와 더불어 민중적 민족문학론의 디딤돌임을 주장하고 있어, 읽는 이의 입장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그의 시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꽃산이라는 상징적 시어로 “끝내 이 세상을 이기고 저 세상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찬 「꽃산 가는 길」은 구체성을 잃지 않아 더욱 큰 폭으로 감동의 여율을 전해온다. 시인 자신의 결혼과 득남이 가져온 행복을 가족이기주의의 울타리 속으로 가둬

놓지 않고 “아직은 그대 앞에 두 손 다 편히 내려놓고 그대 바라볼 수 없이 흔들리는 우리 땅 우리들의 사랑”임을 노래해 자기희생 속에 넓혀지는 새로운 공동체에의 길을 드러내 준다.

“빼앗긴 땅 우리 세상 찾아 저기 저남산 꽃산에 우리 꽃 피러 가자”라는 그의 세계관은 ‘비극적 황홀’이라 이름지을 수 있다. 황홀이라는 것은 시인이 꿈꾸는 세계가 이 땅위에 튼튼히 구축되어야만 하는 이상적 삶이기에 그러하며,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극과 황홀의 간극, 시인의 상상세계가 솟아나는 원천이 바로 그곳이며, 김용택의 건강함은 비극의 고개를 넘어서 황홀경에 닿고자 하는 시대정신에 맞닿았기 때문이다.

“불을 끄고 누워 잠 못들고 뒤척이는 이 밤 베갯머리에 와서 우는 귀뚜라미야”로 시작되는 「내 님의 목소리」에서 찬 바람에 영롱한 별빛만 있는 깊은 밤 귀뚜라미의 작은 울음소리에 잠 못이루는 김용택을 볼 수 있다. 왜 잠들지 못할까? 그것은 아마도 “풀꽃같이 피었다가 흙담같이 무너져” 버린 우리네 삶을 별빛으로 씻기고 싶어서가 아닐까.

김춘화

교사·인천시 남구 간석동 247

민족수난기의 민중의 삶 그려

박경리 지음 「土地」

1976년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와 불평등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뒤 한일합방이 되기까지 일본은 명치유신 후 신흥제국주의로서 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한국을 침략했다. 한말 우리의 위정자들은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워 모든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우리의 땅이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해간만 위정자들은 자기 당파의 득세에 혈안이 되어 국가와 민족의 안위보다는 강대국의 힘을 빌어 집권연장에만 힘을 기울였다. 합방 이후 일제의 식민지반봉건체제 하의 추악한 폭정과 탄압속에서 우리의 기층민중들은 수모와 고통과 한을 삭이면서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토지」(지식산업사)는 굴욕의 한국근대사

를 살아가면서도 민족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끈끈하게 질곡의 역사를 살아간 민중들의 이야기이다.

1부에서는 평사리 최참판댁의 몰락과 조준구의 수술로 홀로 남은 서희가 토지문서와 재산을 빼앗기는 과정이 펼쳐진다. 마을사람들은 조준구의 횡포에 치를 떨며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로 끝나고, 서희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평사리를 탈출한다.

2부의 무대는 북간도이다. 북간도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민족대이동에 의해 규모가 크게 성장한 곳으로서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곳이기도 하다. 간도에 정착한 서희는 뛰어난 상술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

지만 조준구에 대한 복수심은 뜨겁게 달아오르기만 한다. 하인신분인 길상이와 결혼을 하고 공노인을 앞세워 잃었던 토지를 되찾은 서희는 독립운동을 하는 길상이를 남겨둔 채 아들과 마을사람을 데리고 고향 평사리로 떠난다.

3부에선 국내·국외에서 민족적 지식인과 민중이 한몸이 되어 독립을 선언하고 3.1운동을 기점으로 대대적 시위가 벌어지게 된다. 북만주에서도 군사적 성격의 항일단체가 늘어나고, 임정 이후부터는 독립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반면 일제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 친일분자를 육성하고 합병의 공로자에겐 귀족으로 대우해주는 등 갖은 수단·방법을 동원한다. 이 와중에서 서희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조준구는 망하고, 지리산 동학집주 김환도 눈을 감는다. 그러나 서희의 아들 한국·윤국은 올바른 국가관을 지니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조선왕조가 몰락하면서 벌어진 일체침략

과 우리 민족의 줄기찬 항쟁은 그대로 민족의 자주역량을 과시하는 독립운동으로 장식되었다고 하겠다. 「土地」는 최참판댁의 몰락과 최서희를 중심으로 한 숭한 민중들의 끈끈한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나아가갈 길을 제시해주는 뛰어난 작품이다.

백정옥

상업·충남 대전시 서구 변동 15-15 16/1